

# 중국 IT 산업 정책

권오흥 · 최영지 · 최완준 · 김도환

관동대학교 정보기술공학부

IT industrial policy of China

Oh-Heung, Kwon · Young-Ji, Choi · Wan-Jun, Choi · Do-Hwan, Kim

Kwan Dong University

E-mail : koh@kwandong.ac.kr

## 요 약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준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 키워드

후진타오, 장강델타, 주강델타, 북경, 중경

## I. 서 론

최근 세계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을 첫 손가락에 꼽는데 커다란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1953년부터 시작된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며, 통신 분야는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1991~1995년 간의 8차 5개년 계획과 1996~2000년 간의 9차 5개년 계획에서의 통신분야의 목표는 유선교환기 분야에서의 충분한 공급능력의 확보를 통하여 가입전화 적체의 해소, 수입대체 산업으로의 통신산업의 육성 등에 중점이 두어졌다. 8차 5개년 계획 및 9차 5개년 계획을 통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일반전화 가입자는 1억 4천만 명 수준, 전화 교환기 용량은 1억 8천만 회선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8천 5백만 명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중국정부는 2000년 10월 9차 5개년 계획에 이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될 ‘중국 10차 5개년 계획 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기획 방향은 정부정보화, 산업정보화, 기업정보화, 가정정보화의 부문별 정보화를 실제 수요에 따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학·연구 네트워크를 전체 교육기관에 확대하여 연결하고, 대도시와 중도시 및 발전된 농촌지역까지 지역정보망의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이동통신 산업 등 IT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2001년 WTO 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승인, 그리고 서부 대 개발 계획 및 실행 등의 추가적인 성장요인은 크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언급한 긍정적 요인들은 IT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IT산업 정책과 관련, 서부 대 개발에 따른 서부지역의 중심 개발 지역인 중경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실태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중국 정보통신 정책 분석

### 1. 정책 방향(10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국가정보화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의 지도방침과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다. 즉 전반기획, 국가주도, 통일표준, 연합건설, 상호연동 및 자원공유의 정부 지도방침 하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국가 4대 현대화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에 따라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며 국민경제의 지속, 고속, 건전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략방향은 특히 정부, 산업, 기업 등의 정보화 추진 방향

에 따라 정보기술응용, 서비스와 정보자원 개발을 이용하여 국민경제, 국가보안, 국제시장 추세에 맞추어 정보산업을 발전시키고 핵심기술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은 정보통신 산업을 국민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조정을 주도하는 국가 중심 산업으로, 국력을 증강시키는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을 한 나라의 기반 산업이자 선도 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일된 관리, 통일된 계획, 합리적 자원 분배로 중복 건설을 방지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정보통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정해야 한다.

정보기반시설을 대용량, 고효율,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신뢰도가 높게 구축할 계획이다.

네트워크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DWDM, 제 3세대 이동통신, IP 등 선진기술을 채용하여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 및 세대교체를 실현한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점차 음성, 데이터, 화상을 일체화한 광대역, 고속 공공 정보네트워크로 발전하도록 하며 기본적인 통신업무와 여러 가지 광대역 멀티미디어 수요를 만족시켜 전반적인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

연구개발센터를 단지화시켜, 창조적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자정보 과학연구체계를 형성한다.

연구개발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국가적인 개발생산지지를 형성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기업 및 그룹을 지원하고 중서부 지역의 전자정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핵심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정보기술 국제표준의 연구, 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무원이 제정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 벤처투자기금, 외국증권회사 자금유치, 조세감면 우대정책 등을 통하여 마이크로 전자,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민경제 부문에서 국산 기술장비 응용수준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통산업의 개혁을 통해 정보네트워크화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공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정보화를 추진할 때 선진국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의 경제, 사회발전 현황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통산업의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

## 2. WTO가입과 이후의 방향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국의 WTO 가입은 2001년 11월에 결국 승인되었고, 2002년을 열면서 중국은 WTO의 정식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 및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다국적 기업에게 여러 형태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동등한 위치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 다국적 기업에는 중국 시장이 세계 시장에 개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해외의 투자자들에게 있어

서 중국의 IT시장은 다른 아·태지역 국가에서의 실적을 보완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대해 이견은 거의 없어 보이며, 실제로 유선전화 및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시장 등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 및 시장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도 환경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이로써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쉬워지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WTO와의 협약에서, 중국은 통신관련 산업의 시장 개방에 대해 향후 몇 년의 시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국은 하이테크 기술 및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여건이 개선될 전망으로, 중국의 낙후된 정보통신, 자동차, 기계산업의 구조개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 3. 후진타오(胡錦濤)체제의 정책 방향

중국의 IT산업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뉴욕 나스닥의 침체영향으로 위축됐던 세계시장이 올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도 중국에 대한 밝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2002년 11월의 당 16차 전국대표대회(16大)를 통해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로 등장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의 IT산업에 대한 관심 및 선진국 수준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IT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장쩌민 전임 총서기도 IT산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후 총서기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지도자로 몇 단계 앞선 행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쩌민 주석이 16대 개막식 정치보고에서 밝힌 향후 IT정책에 비춰볼 때 후 총서기는 우선 소프트웨어(S/W) 산업 수준의 대대적 제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03년 올해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지난해 2002년의 110억 달러에 비해 30% 가깝게 늘어난 1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 총서기는 1980년대 중반 귀주(貴州)성 성장 시절부터 당정 지도부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 더해, 그가 장쩌민의 'IT를 통한 경제적 번영' 원칙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천명한 사실은 중국이 IT강국으로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인터넷카페 등에 대한 정리 강화 방침을 확정하고,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등록제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게이머 등의 인재발굴을 위해 앞으로 이들을 국가

적 예술가로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까지 더하면 향후 중국의 IT산업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후 총서기 체재하의 중국은 이밖에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목표로 이른바 '863계획'이나 서부 대 개발 등의 국가적 프로젝트 등을 통해 IT 산업 진흥에 박차를 가할 것이 확실하다. 특히 서부 내륙지방의 IT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화 격차해소 노력은 중국 전체의 IT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렇게 볼 때 후 총서기 시대가 IT전성시대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후 총서기의 시대는 해외의 중국계 첨단 IT인력을 대거 유치한다거나 대만과의 합작에 적극 나서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후진타오 시대는 정치적으로 장 주석의 막후정치 시작으로 다소 불안한 여지가 없지 않으나, IT산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르네상스와 다름없는 절정의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다.

### III. 중국의 IT 발전 현황 및 정책

#### 1. 동부 해안 지역의 IT 발전 현황

하이테크산업 개발단지 설립과 발전은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고급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환경조성을 토대로 중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하이테크산업 개발단지들 중 북부(중관촌), 중부(장강델타), 남부(주강델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상해 푸둥(浦東)을 중심으로 한 장강(長江)델타 지역, 중관촌(中關村)을 중심으로 한 북경(北京)지역, 심천(深圳)을 중심으로 한 주강(珠江)델타 지역이 IT등 중국 첨단산업의 3개의 지역축이다. 지역마다 각각의 특성을 갖고 발전하였는데, 장강델타 지역은 최근 가장 발전하고 있는 하이테크의 집중화 단지이며, 중관촌 등 북경지역은 연구개발 단지, 주강델타 지역은 IT산업 제조기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표 1. 중국 첨단 산업 발전의 3개 지역축 비교

	장강델타 지역	북경 지역	주강델타 지역
위치	-중부 -상해, 강소성	-북부 -천진 -산업기지와 연계	-남부 -심천, 둥관, 순덕
발전시기	-90년 국가급 개발구 (상해 푸둥)지정	-88년 최초의 첨단기술 개발구(중관촌) 지정	-80년 최초의 특구 지정으로 개방
산업특징	-종합적 하이테크 단지 (IT, 반도체, 금융) -세계적 하이테크 메카	-연구개발 단지 -연구인력 밀집	-IT산업기지 (컴퓨터, 전자부품) -인프라와 시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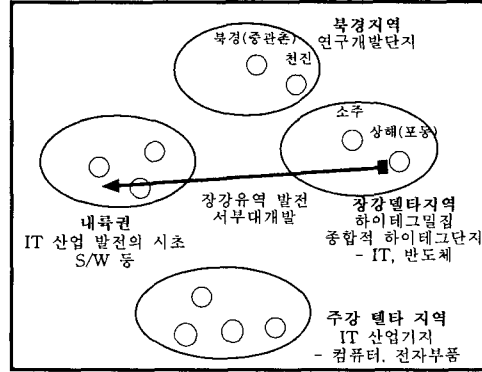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의 지역축

#### 1) 장강델타 지역 : 하이테크산업의 집중화

상해 푸둥을 중심으로 한 장강델타는 반도체,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최근 가장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상해,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IT 분야에서 외국의 대형 기업의 반도체, 노트북 PC, PDP,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용 폴리머전지 등의 진출이 쇄도하고 있다. 북미, 유럽계 기업에는 모토로라, 노키아, 인텔, 휴렛팩커드 등, 일본 기업은 소니와 NEC 등, 대만기업도 노트북 PC와 반도체의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상해 푸둥지구는 남부의 경제특구들보다 10년 늦은 1990년에 국가급 개발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발전의 최선두 주자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해 푸둥지구의 발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지리적 우위, 양호한 인프라, 풍부한 인적자원 등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중앙정부와 시 당국의 치밀하고 장기적인 투자유치 계획 하에 조성이 되었다. 둘째로 금융무역구,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강 첨단기술개발구는 의약, 전자, 정보, 바이오 등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이며, 푸둥 소프트웨어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델타 지역은 향후 세계적인 하이테크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IT산업 분야에서 전세계 일류기업들이 밀집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2) 북경지역 : 중관촌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단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북경 중관촌은 인터넷 산업 및 과학기술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1988년 8월 중국정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으로 중관촌을 제1호 첨단기술 개발구로 지정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과학 입국을 위한 시험 지구로 개발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시범기지로 수도 북경에 건설하였다.

중관촌은 '중국의 두뇌'로서 풍부한 고급인력이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이 소재해 있고 단과대,

전문학교를 포함하여 70여개 학교로부터 매년 학부(약 3만명), 대학원(약 6000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중국과학원을 필두로 하여 213개소의 연구기관, 8만명의 국가급 과학연구원, 30만명이 넘는 과학기술 관련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유명 IT기업들도 이러한 대학과 인재를 기반으로 탄생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북경대학으로부터 「북대방정(北大方正)」, 칭화대학으로부터 「청화동방(清華同方)」, 중국과학원 계산소로부터 「롄상(聯想)」이 그것이다.

중국정부가 99년 6월에 설립한 중관촌 과기원구는 하이테크 파크 건설, 인프라 정비 및 해외의 중국인 유학생과 기술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정비와 벤처기업을 지원하였다. 또 2000년 말 중관촌에는 8,224개의 기술계 기업이 등록한 가운데 이중 전자정보기업(컴퓨터, H/W, S/W, internet 통신 TV 방송설비, 집적회로, 전자부품 등)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2000년에 새로 설립된 기술계 기업은 2,461개로 전년에 비해 두배나 늘어난 숫자이다. 또 2000년 북경시 공업생산액 중 중관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었다.

북미, 유럽계 기업은 치열해지는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중국 내 연구개발 부문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북경에 R&D 부문을 갖춘 외자계 기업이 20개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80년대 심천, 90년대 푸둥, 21세기 중관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관촌을 첨단산업 R&D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IT, 바이오, 신소재, 자동차, 항공·우주, 환경, 나노 테크놀로지 등 첨단 산업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3) 주강델타 지역 : IT산업의 제조기지

심천, 홍콩 등 남부권은 중국에서 최초로 개방실험이 시작된 지역으로 특히 심천은 중국 경제개방의 상징적 도시로 97년 7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까지는 홍콩과 함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다. 개방의 역사가 긴 만큼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잘 정비된 인프라와 오랜 시장경제 경험이 풍부하고, 인근 홍콩의 금융 인프라와 위치상 중국과 동남아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심천을 중심으로 한 광둥성의 주강델타 지역에 IT생산이 집중화되어 동관, 순덕, 주해 등의 공업도시가 연결되어 있다. 80년대에 홍콩계 섬유, 잡화, 전기 산업 진출을 시작으로 일본계의 정밀기계, 가전, 복사기, 전자부품이 대거 진출했었다. 90년대에는 대만계 PC 및 부품, 미국과 유럽계의 PC와 휴대폰, 한국계의 전자부품 등 진출이 증가함으로써 외자계를 능가하는 현지의 전기, 부품 기업도 발달하여 지방 산업으로써 두터운 층을 형성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IT단지간의 보완현상이 증대되고 있는데 북경에서 개발된 IT제품을 주강델타에서 생산하고 주강델타의 전자부품을 장강델타의 IT제품에서 채택하는 형태의 상호 연대와 전략적

제휴가 되어 있기도 하다.

## 2.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IT 발전 정책

### 1) 서부 대 개발 계획의 개요

넓은 내수 시장을 최대 강점으로 하는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중국은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지역적인 개발 및 발전의 편차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처럼 동서로 구분되는 경제 불균형은 장기적, 균형적 발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중국 서부지역은 중국 전체의 면적에서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면에서는 30%미만인 2억 80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일인당 소득은 중국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중국 IT 서비스 지역시장은 화북, 화동, 화남이 지속적으로 시장 선두지위에 있으며, 시장 점유율은 각각 26.1%, 22.2%, 19.8%이다. 서남, 화중, 동북 지역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각 9.4%, 8.9%, 7.8%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서북 지역은 가장 낮은 5.8%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99년, '서부 대 개발 계획(Go West Campaign)'을 발표하여 비교적 발전된 동부지역과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인 서부지역의 동등한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살펴보면,

#### - 1단계(2000~2005): 개발 초기 단계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과 주요기구 구성 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은 가시적인 개발 과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홍보 및 인프라 건설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 2단계(2006~2015): 대규모 개발 단계

서부지역의 자체적인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으로의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

#### - 3단계(2016~2050)

서부지역의 시장화 및 국제화를 추진하여 서부 지역 전체의 도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1년 3월, 중국정부는 서부지역에 특별히 경제특구(SEZ: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서부 지역의 개발 정책을 전담하게 될 국가개발계획위원회(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가 서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초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IT산업 성장은 정부의 촉진정책의 규모나 서부지역으로의 투자전환속도, 그리고 서부지역의 전체적인 개발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현재 중국 정부의 IT 관련 산업으로의 투자 의지를 고려할 때, 서부 대 개발 계획은 IT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2) 중경의 IT정책 현황

서부 대 개발 계획의 봄을 타고 서부의 대도시에도 IT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그 영향력은 동부에 비해 미약하나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중심에 위치한 서부를 들어서는 입구가 되는 중경시의 IT정책 현황을 알아보는 것으로 앞으로 서부에 미칠 IT정책을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 ① 중경의 현 상황

중경은 장강 상류에 위치하여 있으며, 중국 동서부의 교차지점으로 중국행정구역으로는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은 도시이다. 땅의 면적은 8백24만 km<sup>2</sup>, 인구는 3072만명이다.

중경은 장강 상류의 경제 중심이고, 서남지구에서 가장 큰 공·산업의 주요도시 및 대외경제 무역항구 도시이다. 50여 년의 건설을 통해, 특별히 개혁개방 이후로 실행되고있는 중경경제사회사업은 매우 큰 발전을 하며 국민 총 생산액 중국의 대도시에서도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 ② 발전우위

## - 직할시의 영향

1997년 중경이 중국 4대 중앙직할시로 승격된 후, 더 큰 경제관리권한과 중앙에서 부여하는 많은 우대정책을 지휘하게 되었다.

## - 행정구역, 우세한 위치

중국 동(東)·중(中)·서(西) 3대 경제권의 각 지역 중, 중경은 발전이 비교적 빠른 동부와 자원이 풍부한 서부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강유역 경제와 서남지역 경제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3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 편리한 교통

중경은 철도, 고속도로, 수운, 항공 등 운반수단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중국 장강 상류와 서남지역의 가장 큰 수(水)·육(陸)·공(空) 교통의 요충지이다. 서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강을 건너 바다로 가는 도시로 독특한 수운을 가지고 있다.

## - 서부 최고의 종합 기술력 도시

공업은 중경경제의 중심이고, 이미 자동차, 야금, 화학공업은 지주산업으로 형성되어 있고, 종합 부설 능력은 매우 완전한 공업체계가 마련되어있다. 충분한 과학기술 실력을 지닌 각종 전문기술인력 또한 56만 명이 이른다.

## ③ 중경 첨단기술개발지구 소개

중경 첨단기술개발지구는 1991년 3월 국무원 허가의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지구로, 전국 5개 종합개혁시범 개발지역 중의 하나이다. 2001년 초 국가가 평가한 전국 선진개발지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경 첨단기술개발지구는 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건설된 2km<sup>2</sup>의 石橋鋪첨단과학기술개발단지, 현재 건설중인 10km<sup>2</sup>의 二郎과학기술단지 그리고 50km<sup>2</sup>의 북부신첨단개발단지가 그에 포함된다.

중경은 하이테크산업을 기초로 2001년 말, 첨단기술지구 내에 이미 약 4000여 가구의 과학기술기

업이 등록하였고, 그 중 첨단기술기업 400여 가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국가와 각 개발지구의 “삼자(三資)”기업이 360여 가구다. 이미 중경 생물생화학제약기술개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해외유학생창업센터 등 전문시설단지를 건설하고, 전자정보, 생물생화학제약 및 의료기구, 신소재, 기차 및 자동차 신형상품 생산 등 4대 첨단기술산업단지가 초기에 형성되어있다.

2001년, 첨단과학기술분야는 총수입 190억원, 공업은 총 생산액 127억원, 세수입이 8억9천만원에 이른다.

향후 5년, 첨단기술지구는 광전산업, 의료기계산업, 소프트웨어산업을 3가지 중심 산업으로 한다. 전자정보, 생물공정과 신약개발, 신소재, 자동화를 4대 주요 산업으로 정하여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2005년까지 중경첨단기술단지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총수입 600억원을 실현하고, 2010년에는 1200억원을 실현할 계획이다.

## ④ 우대정책

중경 첨단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가가 첨단기술기업 및 “삼자”기업의 우대정책과 국가와 중경시가 실시하는 서부 대 개발 우대정책 및 각종 특별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중경 첨단기술단지에서 계열산업을 보호·조치하도록 제정 실시한다.

## IV. 결 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이후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IT산업의 발전은 발전 방향을 함께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올라설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향후 10년은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적 세계화 추세는 중국에 거대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 정도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제 10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7%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성공과 더불어 최근 세계 1위의 시장 규모를 보이기 시작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IT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여지 또한 강하다. 시장개방과 첨단기술 흡수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결과, 동·서부간의 지역편차가 심하여 경제발전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서부 대 개발 계획”은 비교적 발전된 동부지역과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인 서부지역의 동등한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다.

① 1단계(2000~2005)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계획 및 정책 수립과 주요기구 구성 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② 2단계(2006~2015)

대규모 개발 단계로 서부지역의 자체적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단계이다.

③ 3단계(2016~2050)

서부지역 전체의 도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진행 중에 있다.

서부 대 개발 계획과 10차 5개년 계획으로 서부의 대표적인 도시 중경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경은,

① 비교적 발전이 빠른 동부와 자원이 풍부한 서부의 교차지점이자 장강유역 경제와 서남지역 경제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② 장강 상류와 서남지역의 교통의 요충지로 서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바다와 연결되는 수운을 가지고 있다.

③ 첨단기술개발지구는 1991년 3월 국무원 허가의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지구로, 전국 5개 종합개혁시험 개발지역 중 하나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외국계 기업은 국가와 중경시가 실시하는 서부 대 개발 우대정책 및 각종 지원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동부지역 해안 중심의 IT분야 발전이 중경 중심의 서부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IT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의 서부지역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았다.

참고문헌

[1] 이은미, “중국 IT산업의 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4권 23호 통권 315호, 2002. 12.16  
 [2] 이성휘, “중국의 IT산업 백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1  
 [3] 이성휘, 정현수, “WTO가입과 중국의 IT 산업” 전자통신동향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6  
 [4] 유진석, “중국 IT산업의 현황과 전망”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5] 이홍재, “중국의 정보통신 정책 방향”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진흥 12월호, 2002  
 [6] 오병운, 이진국, 양장성, “중국의 이동통신산업정책 및 진입규제 동향”, SKTelecom Reveiw 78호특집부록, 2002. 7  
 [7] 정상준, “중국의 정보통신정책방향” 회보 통신연합 제22호, 2002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국의 IT 산업보고서”, 2002. 11  
 [9] 디지털타임즈, 2002.11.18  
 [10] 정현수, “중국의 IT산업 현황 및 전망” 통신동향 9월호, 2001.9  
 [11] 지만수, “중국 주요도시의 첨단산업 육성전략” 주간경제 619호, LG경제연구원, 2001. 2. 28  
 [12] 曲維枝, 李志明, “2001-2002年 電子信息產業經濟運行狀況與發展趨勢”, 中華人民共和國信息產業部, 人民出版社, 2002. 1  
 [13] 肖靜華, “IT業跨國投資與國家競爭力”, 中山大學出版社, 2001  
 [14] 張海棠 外, “IT時代管理革命-第5代管理”, 民主與建設出版社, 2001. 1  
 [15] 章錚, “新經濟:一場偉大的爭吵”, 西苑出版社, 2002. 1  
 [16] 主特, “中國e跨越:通過電子商務實現跨越式發展的戰略研究”, 廣西人民出版社, 2002. 5  
 [17] Thomas H·Davenport, Laurence Prusak 著, 周長才 譯, “把握 e時代:常務/信息/技術”, 海天出版社, 2000. 10  
 [18] 中國 中慶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2002홍보자료